

2019학년도 제 1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년 12월 28일(금) 10:30~12:0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 성인창 (경제학부 학생회장)
 -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김정미 (주간MBA 원우회장)
 - 최효영 (대학원 총학생회장)
- 배석 :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 이근화 (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확인 및 심의 보고자료 내용 해설

- 배석한 기획예산팀 간사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하고, 등록금 상한선 (2.25%)을 확인하고, 등록금 및 교육비 추이와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의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에 대해 설명함.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2016년 등록금 환원율이 산학협력단에서 C1가스리파이너리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시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인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연구비가 들어오면 규정 상 학교를 통하게 되어있고 학교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인데, 이 부분이 등록금 환원율에 반영되었음. 산학협력단 간접비 논의 시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여 2017년에는 다시 등록금 환원율이 제자리로 돌아감. 우리 학교의 등록금 환원율 순위는 서울 시내 대학 중 5,6위 정도에 속함.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등록금 환원율의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분모가 등록금, 분자가 학생들이 받는 수혜금액임. 지표상 우리 학교는 등록금의 2배 정

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됨.

이종진(위원장)

주요 지표 중 현재 장학금 지급율 지표는 조금 떨어진 상황임. 지표를 올리기 위해 노력 중임. 이월금 지표에서는 학교는 좋은 상태를 기록 중임. 우리 학교 부채가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국제인문관 및 산학연구동에 12.5억 정도 되며 2년 내에 상환 완료 가능함.

이종진(위원장)

우리 학교가 적립금은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부채는 매우 적음. 한편, 현재의 낮은 법인 전입금 비율은 법인과 이사회에서도 참고해야 할 사항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 학교에서는 학교로 바로 들어올 자금이 법인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우리 학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편임. 현재 법인 법정부담금 포함 16억정도를 부담 중인데 순수하게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법인전입금비율이 학교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면 학교와 법인이 전략적으로 지표 관리에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순수한 법인전입금 금액도 늘려야 하겠지만 지표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고민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도 전세 보증금 등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낮추는 문제 때문에 임대 빌딩의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음. 기존의 임대 빌딩의 전세 보증금은 학교의 토마스 모어관, 현리인성교육원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를 위해서 쓴 부분들이 있음. 하지만 현재 월세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유동 자금이 있을 시 월세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이종진(위원장)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지표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현재 6등급에서 5등급 정도만 올라가도 16억 정도 이상의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현재 우리가 0.1%가 모자란 상황인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인의 재산과도 관련이 있지만 분모인 학교의 운영 수익과도 관계된 부분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금액 대비 학교 운영 수입 증가 분을 고려하여 지표를 판단해야 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해당 지표들은 참고자료일 뿐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 때마다 지표 기준이나 비율이 다름.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음.

이종진(위원장)

평가마다 이 지표를 적용하는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는 교육부에서 학교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바라보는 입장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검토하라는 의미임.

이종진(위원장)

대학알리미 공시사항으로 9가지 항목은 신경써야 된다는 항목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학교의 평가가 나빠지고 있다는 부분과 위의 지표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이종진(위원장)

중앙일보 평가는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대학평가에서에서는 연구력과 관련된 지표 때문에 하락하였음. 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떨어지지 않았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지표가 나빠진다는 부분은 학교에서도 지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이 지표들의 평가 비율을 알아야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한지를 알 것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임.

성인창(경제학부 학생회장)

지표 중 어떤 것이 중점적인 지표인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 지표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함.

이종진(위원장)

평가 비율은 여러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양호한 지표 외에 수치가 하

탁한 지표들은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함. 어떤 지표가 중요한 지표인지는 추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료를 보면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성인창(경제학부 학생회장)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은 3년 정도의 추이를 볼 수 있다면 학교의 어떤 부분이 평균보다 좋아지거나 멀어지고 있는 등의 변화를 알기 쉬울 것이라 생각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을 결정하는 자리임. 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3%정도 되는 큰 비율임. 지표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안, 교수 및 학생들을 어떻게 서포트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임.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을 설득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등록금을 올려야 된다는 논의도 할 수 있음.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컨센서스가 도출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지표만 가지고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음.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느라 위원회가 매번 길어졌던 상황임.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 교육에서 처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금을 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의 비전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학교가 앞으로 바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원을 바란다면 동문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음.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하였기 때문에 지출을 늘 줄여왔던 부분이 있음. 학교나 이사회에서 비전을 갖고 동문회에 지원을 바란다는 말을 듣지 못했음. 학교의 여러 방향성을 논의하는 심도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의 논의하는 자리이며 다른 논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함. 예산 배정 시에 학교의 기조를 심의하고 동문위원 및 학생위원, 노조, 교수위원들이 모여 비전을 논의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만의 중요한 논의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함.

이종진(위원장)

종합적인 학교의 상황은 등록금 수입은 줄고 있고 비용은 늘고 있음.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슈도 지출 쪽에서는 큰 문제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예산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 및 축소, 지출규모 한계로 인해서 학교가 받는 영향과 앞으로의 학교의 방향성이 잘 논의되기를 바람. 또한 학

교, 학생, 법인, 동문회가 노력하고 지원해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결정하면 이 자리가 좋은 논의의 장이 될 것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구조적으로는 등록금이 인상이 가능하다고 밀하지만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을 시에 교육부의 각종 제재으로 인해서 타 학교들도 동일하게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임. 2018년과 같이 학부 등록금보다는 대학원 및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등록금 확정도 추후 논의될 예정임.

성인창(경제학부 학생회장)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학생들도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음. 최저임금, 등록금 동결, 교수진의 타학교 유출 등에 대해서 학생들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도 모호하게나마 체감하고 있음. 그렇다면 구체적인 추이나 세부자료를 알 수 있다면 학생 위원으로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임. 만약에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소통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함.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등록금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슈임. 또한 강사법 때문에 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안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 자료들을 많이 제시해 주었으면 함.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자료는 언제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위원회에게 협조하여 주기를 바람.

이종진(위원장)

3개년 동안의 각종 재정 지표의 추이를 다음번 논의 때 기획처에서 제공하고자 함.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등록금 인상 시 각종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어느정도 형식적인 절차라 볼 수 있음. 정부의 정책을 감안하여 등록금 동결, 외국인 등록금 인상 정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도가 좋을 듯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함.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비전에 대해 논의함으로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중요한 재정 자료의 추세를 보여줌으로서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학생들이 이러한 재정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강을 살리자는 취지를 공유하고 이해한다면 언론에다 학생들이 나서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봄. 집행부들이 나서는 것보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강대학교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반값 등록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상적인 안이라고 봄.

성인창(경제학부 학생회장)

교육부의 CORE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음.

이종진(위원장)

정부의 CORE, CK-II, ACE+ 재정지원사업이 통합되었음. 3가지 사업으로 도합 55억정도 지원을 받았으나 통합된 지원사업에서는 액수가 줄어들 예정임. CORE사업 중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을 기획처가 검토 중에 있음.

성인창(경제학부 학생회장)

재정지원사업에서 얼마나 예산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는지.

박시남(기획 예산팀장)

대학평의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등록금 관련 주요 재정 지표들을 기획처에서 잘 준비하여 주기 바라고, 등록금 동결 혹은 인상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학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음.

3.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 2차 회의 일정은 1월 4일 금요일 10시 30분으로 잡기로 함.
- 3차 회의 일정은 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잡기로 함.
- 4차 최종 회의는 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잡기로 함.

2019. 1. 4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김달원
법인 사무팀장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학생위원)

성인창
경제학부 총학생회장

해당 학생위원회
사망하여
등록금상의위원회 회의록
에 서명하지 못함.

(외부전문가)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